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## 미국 의료서비스, 고비용과 낮은 접근성이 문제

□ 최근 실시된 설문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타 선진국에 비해 고비용과 보험계약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의사와 보험사간의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부담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설문을 주관한 민간단체인 커먼웰스 펀드(Commonwealth fund)는 설문결과에 대해 미국이 타선진국의 두 배 이상을 보건의료에 지출하면서도 의료의 질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, 미국의 취약한 진료체계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고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논평함.
- 설문은 미국을 포함한 11개 선진국에서 만 명의 1차 진료기관 의사들(primary care doctors)을 대상으로 실시됨.
- 설문에 참여한 미국의사 중 58%가 미국 진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비용과 접근성을 꼽은 반면 다른 선진국에서 의료비 부담을 문제라고 답한 비중은 5%~37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- 특정 의약품이나 진료를 제한하는 보험계약 상의 제약 또한 중요한 문제라는 답이 많았으며, 보험회사와의 협의에 허비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약 50%가량이 중요한 문제라고 답함.

□ 응급실을 제외하고 업무시간 이후에 환자들이 의사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네덜란드, 뉴질랜드, 영국 등은 대부분 가능한 반면 미국은 29%의 의사들만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.

- 이는 설문 대상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06년 40%에 비해서도 떨어진 것으로 미국인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줌.
- 그러나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.
- 마지막으로 미국의 의사들의 46%만이 의료기록을 전산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네덜란드, 뉴질랜드,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료기록 전산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(Insurance Journal, 11/5)